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 갯벌' 이야기 책으로 발간

- 해당 책자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남 순천만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갯벌 이야기책(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을 발간했다.

순천만 갯벌은 전라남도 순천과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로, 국제적인 보호종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뿐만 아니라 붉은발말뚝개, 대추귀고둥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때 순천만 갯벌은 순천만 상류 정비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3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이후 그 생태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고,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거나 독특하고 국제적인 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국제습지 목록에 등록된 습지

순천만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에 힘입어 연간 최대 6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순천만에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번 순천만 갯벌 이야기책에서는 순천만 갯벌의 형성 과정부터 대형저서 동물, 염생식물 등 순천만 갯벌에 서식하는 122종의 해양생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특히, 국민들이 순천만 갯벌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붉은발말뚝게와 흰발농게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순천만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이야기, 블루카본*으로서 갯벌의 가능성 등 흥미로운 해양과학 이야기들도 담았다.

* Blue Carbon: 염생식물, 해조류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해양수산부는 이 책자를 해양보호구역 센터 및 관련 지자체 등에 비치하는 한편,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도 게재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 책에 있는 신비롭고도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갯벌에 대한 보전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생태계 보전에 대해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 전문가들이 갯벌에서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해양생태계 자료와 해당 갯벌의 인문·사회학적 자료들을 모아 2011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책(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해 왔다. 현재까지 강진도암만, 보령 대천천 하구 갯벌, 인천 무의도 갯벌, 충남 가로림만 갯벌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0-5318)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 갯벌

차세대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 각광받는 갯벌,
순천만 갯벌을 소개하는 도서 '탄소중립의 시작, 순천만 갯벌' 발간



순천과 순천만

순천의 역사, 여자만과 순천만

갯벌의 역할과 순천만 갯벌

탄소 저장고 갯벌

수많은 생명을 품는 갯벌

갯벌의 지형과 서식하는 동식물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참고 2

순천만 갯벌 전경

